

## Executive Summary

### □ 생활 경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 지방 선거 이후 경제 전망과 과제

지방 선거 이후에도 국내 경제의 회복 지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 주력 산업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4분기 제조업 GDP 증가율(이차전기대비 기준)은 0.9%로 경제성장률 1.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1.2%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풍부한 유동성과 주가 상승 등에 의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 생산 확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4분기 민간소비와 가계소비가 모두 작년 4/4분기의 증가율 수준인 1.1~1.2%에 머물고 있다. 셋째 설비투자의 회복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의 침체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2005년 4/4분기에 전기대비 4.2%의 증가에서 올해 1/4분기에 -0.7%의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또한 건설투자 증가율도 같은 기간 0.0%에서 -0.3%로 하락하는 등 침체를 지속 중이다. 넷째 수출 증가율 둔화와 원자재 수입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다. 수출 비중 1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5년 20%대의 증가율에서 올해 들어 10%대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유가 급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환율 하락에 의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 되어 2005년에 약 16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올해 1~4월에만 누적적자 규모가 2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외형상 실업률은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4월 현재 전체 실업자의 44%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주력 산업 부문인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하반기 물가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국내 물가의 선행 지표인 수입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가 높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실속 없는 경기 회복(empty recovery)이다.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GDI 증가율이 작년 4/4분기에 전기대비 0.9%에서 올해 1/4분기에 -0.1%로 급락함에 따라 내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2006년 경제성장률은 2005년의 4.0%보다 0.5%p 상승한 4.5%(2005. 10. 4. 전망치 유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5%, 하반기 4% 내외의 뚜렷한 상고하저의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성과급 지급 등에 의한 연초 효과, 환율 하락에 따르는 구매력 증가, 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기존 전망치인 3.5%보다 높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가 급등세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12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경상수지는 8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하향 조정되어 소비 증가의 추가 경제 성장 효과가 상쇄될 전망이다.

향후 경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성장률 5%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예상되는 경기 하강세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2007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느냐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상에 토대를 둔 인기영합적인 경제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고 투자, 고용,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민 실질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생활 경제로의 복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선거 이후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둘째 零和(zero-sum) 방식의 분배 정책이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非零和(non zero-sum) 방식의 지속 가능한 분배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미간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시켜 시장 기반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은 실물 자산(stock으로서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는 세금 인상 정책과 함께, 금융 자산(flow로서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유인하는 금융 정책이 병행하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리공론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며, 實事求是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 지방 선거 이후 경제 전망과 과제 >

### 경기 하강 우려 증대

- ▷ 경제성장률 둔화
  - '05년 4/4분기 1.6%(전기대비) ⇨ '06년 1/4분기 1.3%로 하락
- ▷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의 2개월 연속 하락
  - 경기 동행지수 : '06년 1월 100.8 ⇨ 4월 100.0
  - 경기 선행지수 : '06년 1월 7.5% ⇨ 4월 5.9%

### 국내 경기 회복의 특징

<b>주요 산업 생산 부진</b>	▷ <b>제조업 생산 부진</b> - 1/4분기 제조업 GDP (전기비)증가율 0.9%에 불과 ▷ <b>일시적인 서비스업 호조</b> - 서비스업 GDP는 (전기비)1.2% 증가 - 이는 금융보험업 (2.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8%) 호조에 기인
<b>소비 회복 기초 미약</b>	▷ <b>민간소비 회복 기초 미약</b> - 민간소비 (전기비) 증가율 : '05년 4/4분기 1.1% ⇨ '06년 1/4분기 1.2% ▷ <b>소비재 판매 감소</b> - 소비재 판매 (전기비) 증가율 : '05년 4/4분기 2.2% ⇨ '06년 1/4분기 -1.3% (4월 0.1%)
<b>투자 회복 약화</b>	▷ <b>설비투자 회복세 약화</b> - 설비투자 (전기비) 증가율 : '05년 4/4분기 4.2% ⇨ '06년 1/4분기 -0.7% ▷ <b>건설투자 침체 지속</b> - 건설투자 (전기비) 증가율 : '05년 4/4분기 0.0% ⇨ '06년 1/4분기 -0.3%
<b>경상수지 적자 확대</b>	▷ <b>중국 수출 증가율 둔화</b> - 대 중국 수출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05년 24.4% ⇨ 2006년 1~5월 12.8% ▷ <b>원유 수입 급증</b> - 올해 5월중 원유 수입증가율 전년동월대비 51.8%에 달함 ▷ <b>경상수지 적자 반전</b> - 경상수지 : 2005년 166억 달러 ⇨ 올해 1~4월중 -26.5억 달러
<b>고용 시장 개선 미흡</b>	▷ <b>청년실업 문제 지속</b> - 4월 청년실업자/전체실업자 비중 : 44% ▷ <b>제조업 취업자 감소</b> - 2006년 4월 전체 취업자 (전년동기비) 증가율 1.3%, 제조업 -1.9%
<b>착시적인 물가 안정</b>	▷ <b>외형상 물가 안정</b> - '0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 ▷ <b>수입물가 상승률 급증</b> - '06년 1/4분기 수입물가 상승률 8.1%
<b>실속 없는 경기 회복</b>	▷ <b>실질 무역 손실 급증</b> - 무역손익의 대GDP 비중 : '05년 4/4분기 -6.9% ⇨ '06년 1/4분기 -10.0% ▷ <b>실질 구매력 억감</b> - GDI (전기비) 증가율 : '05년 4/4분기 0.9% ⇨ '06년 1/4분기 -0.1%

### 수정경제전망

<b>2006년 경제성장률 4.5% (2005. 10. 4. 전망치 유지)</b>
▷ '06년 민간소비 증가율 : 기존 전망 3.5% ⇨ 수정 전망 4.0% ▷ '06년 무역수지 : 기존 전망 120억 달러 ⇨ 80억 달러, 경상수지 : 80억 달러 ⇨ 50억 달러 ▷ '06년 연평균 환율 : 980원 ⇨ 940원

## 향후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 : 생활 경제로의 복원

### 세부 과제

<b>▷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b>	- 주식 시장 활성화, 투자은행 육성, 획기적 규제 개혁 등
<b>▷ 지속 가능한 분배 정책 추구</b>	- 비영화 방식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전환
<b>▷ 시장 기반 세계화 추진</b>	-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 등
<b>▷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유도</b>	- 금융 자산 가치 상승 유도 정책의 병행
<b>▷ 실사구시의 실현</b>	- 이념, 명분, 공리공론의 배제,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고려

□ 생활 경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 지방 선거 이후 경제 전망과 과제

I. 현 경제 상황과 선거 결과 의미

1. 경기 지표로 본 현 경기 국면 판단

- 올해 1/4분기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작년 2/4분기~4/4분기의 짧은 경기 회복 국면이 마무리되고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 하락 : 올해 1/4분기의 계절조정을 감안한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3%로 작년 4/4분기의 1.6%보다 0.3%p 하락함에 따라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
- 한편 보조 지표인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5.3%에서 6.2%로 0.9%p 상승함(그러나 이는 전년 동기인 2005년 1/4분기의 성장률이 2.7%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르는 통계적 착시 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분기 국민계정의 주지표 변경 >

- 한국은행은 2006년 1/4분기 경제성장률 주지표(主指標)를 종전의 원계열 전년동기비(前年 同期比)에서 계절조정(Seasonal Adjustment) 전기비(前期比)로 변경
- 이유 : 계절조정 전기비 성장률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으나, 경기의 흐름을 전년동기비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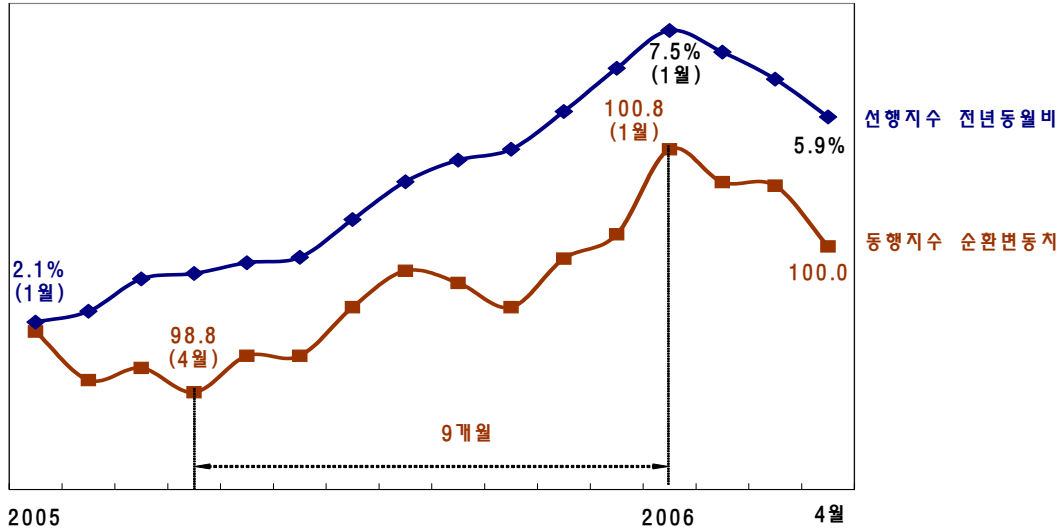
	연간	2005				2006
		1/4	2/4	3/4	4/4	1/4
전기대비 (계절조정)	4.0	0.5	1.4	1.6	1.6	1.3
전년동기대비 (원계열)		(2.7)	(3.2)	(4.5)	(5.3)	(6.2)

<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론과 비관론 >

- 긍정론 : 올해 1/4분기의 경제 지표들의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는 2/4분기 이후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5% 이상이 가능함 (soft patch)
- 비관론 : 문제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성장과 회복의 내용면에서 볼 때 상식적이고 전형적인 경기 회복의 모습과 괴리를 보이는 이상 징후들에 있음. 따라서 올해 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장담하기가 어려움 (경기 회복의 종결)

- 경기 지수 하락세 전환 :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4월 98.8을 저점으로 상승하다가 올해 2월 이후 다시 하강하고 있으며, 선행 지수도 2월에 동반 하락세로 반전됨

< 경기 종합 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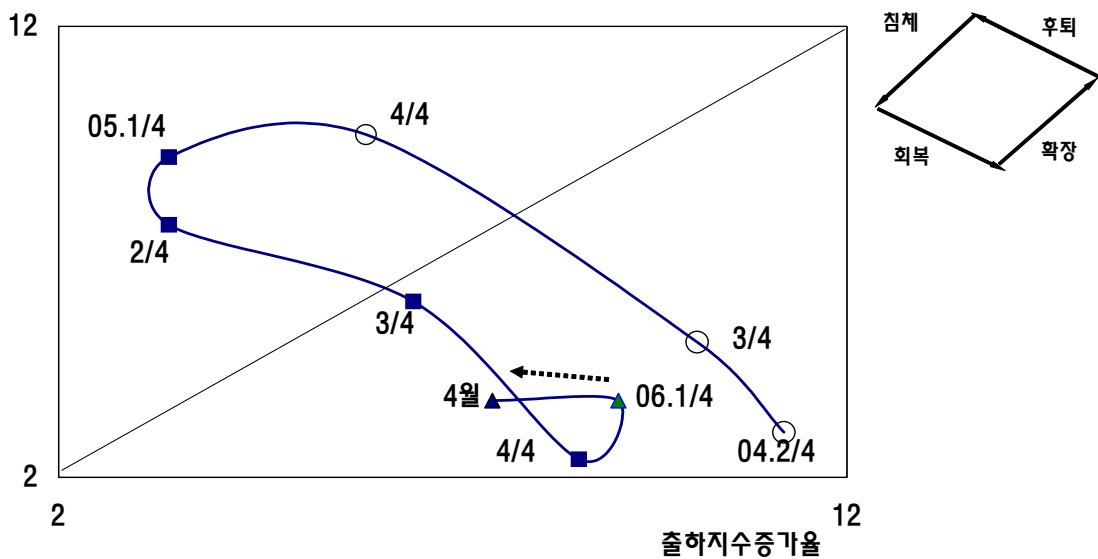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재고 순환 경기 불투명 : 한편 제조업 재고 순환의 경우에는 1/4분기에 경기 확장 국면(右上向)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4월 지표가 경기 후퇴(左上向)로 전환되고 있어 경기 확장 지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함

< 재고 - 출하 비율 추이 (재고 순환 분석) >

재고지수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제조업 기준이며, 원계열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2. 최근 국내 경제 회복의 특징

○ 최근 국내 경제는 주력 산업의 생산 부진, 소비 회복 기조 유지, 설비투자 회복력 약화와 건설투자 침체 지속, 수출 경기 하강 우려 증대, 고용 시장 개선 미흡, 내수 침체와 비용 상승 요인의 상쇄, 실질 소득 저하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

① 생산 : 주력 산업의 생산 부진

○ 1/4분기 들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부진, 일시적 요인에 의한 서비스업 호조 현상이 나타남

- 성장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부진 : 1/4분기 경제활동별 GDP증가율(이하 전기 대비 기준)의 경우, 서비스업(1.2%)과 농림어업(2.9%)이 호조를 나타낸 반면, 제조업은 0.9% 증가에 그침

- 일시적 요인에 의한 서비스업 호조 : 서비스업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4대 업종의 경우 도소매 음식 숙박업(0.6%)와 운수창고 및 통신업(1.0%)은 부진한 반면, 금융보험업(2.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8%)은 호조를 나타냄  
 · 금융보험업의 경우 증시 활황에 따르는 이익 증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부동산 경기 호조와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

< 주요 경제활동별 GDP증가율 추이 >

(전기대비, %)

	對 GDP 비중	2005				2006
		1/4	2/4	3/4	4/4	1/4
경제성장률	100.0	0.5	1.4	1.6	1.6	1.3
농림어업	3.0	-3.6	0.2	-1.3	0.2	2.9
제조업	25.3	0.6	2.2	3.0	3.9	0.9
건설업	8.2	-1.0	2.6	-0.6	-0.4	-0.3
서비스업	52.2	0.8	0.9	1.2	0.9	1.2
도소매 음식 숙박업	8.4	-0.1	1.3	1.2	1.0	0.6
운수창고 및 통신업	6.5	1.0	1.0	1.2	1.7	1.0
금융 보험업	7.5	2.0	0.5	2.7	0.4	2.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1.1	1.0	0.3	0.7	0.9	1.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200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

주 : 對 GDP 비중은 2005년 명목 원계열 기준이며, 증가율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기준임.

② 소비 : 회복 기초 유지

○ 전체 소비 지표는 작년 4/4분기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내구재 소비 확대 때문으로 판단됨

- 소비 회복 기초 유지 : 외형상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대비)은 작년 4/4분기의 1.1%에서 상승한 1.2%를 기록하였으며, 가계소비 증가율도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국민계정상의 소비 관련 지표 추이 >

(전기대비, %)

		2005				2006
		1/4	2/4	3/4	4/4	1/4
국민계정 (한은)	민간소비	0.5	1.4	1.0	1.1	1.2
	가계소비	0.5	1.5	1.0	1.2	1.1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5.4	7.2	2.5	0.8	-
	교통 지출	-1.3	1.6	-0.8	4.3	-

자료 : 한국은행.

주 : 국민계정상의 민간소비는 가계소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로 구분됨

- 소비 회복의 지속력은 약화 :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소비재 판매액의 경우 올해 들어 내구재 부문이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작년 4/4분기에 2.2%에서 올해 1/4분기와 4월에 각각 -1.4% 및 0.1%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 내구재 부문의 경우 작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올해 4월에는 -5.8%로 급감함

< 재화별 소비 지표 추이 >

(전기대비, %)

		2005				2006	
		1/4	2/4	3/4	4/4	1/4	4월
도소매업 동태조사 (통계청)	소비재판매	0.2	1.9	2.1	2.2	-1.3	0.1
	내구재	-2.4	2.3	4.1	2.9	1.1	-5.8
	준내구재	0.3	4.1	2.1	4.4	-3.0	2.8
	비내구재	1.3	0.7	1.2	0.7	-1.6	1.9

자료 : 통계청.

주 :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이 해당되며, 준내구재는 의복, 신발, 가방, 운동 및 오락용품 등이며,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및 담배, 의약품 및 화장품, 서적, 문구 등이 해당됨.

③ 투자 : 설비투자 회복력 약화와 건설투자 침체 지속

- 설비투자의 회복력이 다소 약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의 침체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높아짐
-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선행 지표들도 소폭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음

- 설비투자 회복세 약화 : 2005년 회복 기초를 유지했던 설비투자는 올해 1/4 분기에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 설비투자 (한은) : 2005년 4/4분기에 4.2%의 증가에서 -0.7%의 감소세로 반전 (전년동기대비로는 10.2%에서 6.6%) 됨
  - 설비투자추계 (통계청) : 2005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0%의 증가에서 4.5%로 둔화됨 (올해 4월 7.3% 증가율은 작년 4월 0.3%의 부진에 대한 기술적 반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설비투자 동행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1/4	2/4	3/4	4/4	1/4	4월
설비투자 (한은)	전기비	2.3	2.4	0.8	4.2	-0.7	-
		2.9	2.7	4.3	10.2	6.6	-
설비투자추계		3.9	1.4	1.1	7.0	4.5	7.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설비투자 선행지표 개선세 둔화 : 설비투자 조정 압력, 국내기계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본재 수입액은 증가세가 점차 확대됨
  -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전체로는 1/4분기에 8.4%p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에 들어 5.2%p로 다시 하락함
  - 국내기계수주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4/4분기 17.5%에서 1/4분기에 11.2%로 증가율이 하락함 (올해 4월 15.3% 증가율은 작년 4월 -10.0%의 부진에 대한 기술적 반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자본재 수입액 : 다만 자본재 수입액의 경우 10%대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설비투자 선행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1/4	2/4	3/4	4/4	1/4	4월
국내기계수주 증가율	-6.9	-12.2	14.0	17.5	11.2	15.3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10.0	7.8	12.3	12.2	11.9	13.9
설비투자조정압력 (%p)	-0.4	1.0	4.5	5.9	8.4	5.2

자료 : 통계청.

주 : 1) 국내기계수주는 선박 제외, 경상 금액 기준임

2) 설비투자 조정압력(%p)은 제조업 생산 증가율(%)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이고 대체로 8~10%p 이상이면 투자 압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건설투자 부진 지속 : 건설투자증가율은 작년 4/4분기의 전기대비 0.0%에서 올해 1/4분기에 -0.3%로 하락함

· 공공 부문 침체 : 1/4분기 공공 부문의 건설기성(동행지표) 증가율과 건설수주(선행지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각각 -10.9% 및 -6.0%를 나타냄(올해 4월에도 각각 -4.0% -38.1%를 기록)

- 민간 부문 침체 우려 : 한편 민간 부문 건설기성 증가율은 현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으로 건설수주 증가율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민간 건설 경기 침체가 우려됨

< 주요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1/4	2/4	3/4	4/4	1/4	4월
건설투자(한은)	전기비	0.4	1.8	-0.8	0.0	-0.3	-
		-2.2	1.6	0.3	0.9	0.3	-
건설기성		1.9	9.6	3.8	6.9	5.8	2.0
	공공	-1	3.1	-6.6	0.4	-10.0	-4.0
	민간	3.1	13	8.5	9.2	12.6	5.0
건설수주		22.3	38.5	15.8	-17.9	-9.7	-18.8
	공공	22.2	73.7	0.0	-26.3	-11.3	-38.1
	민간	18.3	30.9	29.1	-5.8	-6.0	-9.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는 경상금액 기준임.



④ 대외 거래 :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올해 들어 원유 수입 급증에 따르는 수입 증가율 확대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급감하는 가운데, 원화 환율 하락에 의한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 對中 및 對美 수출 부진 : 총수출 증가율은 물량 확대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 수출증가율 (전년대비) : 31.0% ('04년) → 12.0% ('05년) → 13.0% ('06년 1~5월)
  - 지역별로 우리 수출 대상국중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05년 24.4%의 증가율에서 올해 1~5월중 12.5%에 그침
  - 한편 단일 국가로는 수출 비중 2위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올해 1~5월중 2.2%에 불과함
- 수입 증가율 상승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르는 원자재 수입 확대로 전체 수입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
  - 올해 5월 원유 및 원자재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비 51.8% 및 32.4% 증가함
  - 1~5월중 수입증가율은 18.7%로 수출증가율 13.1%를 5.6%p 상회함
- 경상수지 적자 반전 :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원화 가치 상승에 의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작년 4/4분기 54.3억 달러의 흑자에서 올해 1~4월에는 26.5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됨
  - 4월 경상수지는 3월의 -4.3억 달러보다 -11.0억 달러 악화된 -15.3억 달러로, 이는 1997년 4월의 -16.2억 달러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함

< 경상수지 추이 >

(억 달러)

	2005				2006	
	1/4	2/4	3/4	4/4	1/4	4월
경상수지	58.8	26.0	26.5	54.3	-11.2	-15.3
서비스수지	-30.1	-32.4	-43.6	-24.9	-50.0	-13.5
여행수지	-20.2	-24.9	-29.2	-22.2	-29.5	-9.0

자료 : 한국은행.

⑤ 고용 : 고용 시장 개선 미흡

○ (고용 시장 경색) 외형상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 지속,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경기 회복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여 고용 시장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업률 하락 : 2006년 4월 실업률은 3.5%로 전년동기인 작년 4월의 3.8%보다 개선된 상황임
- 청년실업 문제 지속 : 그러나 4월 현재 15~29세의 청년실업자수는 36.9만 명으로 전체실업자 84.6만 명의 약 44%를 차지함
- 제조업 취업자 감소 : 또한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동월비 1.9%가 감소하는 등 고용 시장이 국내 실물 경기 회복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 주요 고용 지표 추이 >

	2005				2006	
	1/4	2/4	3/4	4/4	1/4	4월
실업률 (%)	4.2	3.7	3.6	3.5	3.9	3.5
청년실업률 (%)	9.0	7.8	7.6	7.5	8.4	8.0
취업자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0.6	1.7	1.7	1.3	1.5	1.3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	-0.4	-1.2	-1.8	-1.8	-1.7	-1.9

자료 : 통계청.

⑥ 물가 : 수입 물가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 불안 우려

○ 최근 소비자물가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물가에 약 1분기 선행하는 수입 물가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 불안이 우려됨

- 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2%,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Core) 물가 상승률은 1.8%의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물가에 약 1분기 정도 선행하는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

< 주요 물가 관련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1/4	2/4	3/4	4/4	1/4	4~5월
수입물가	0.1	0.9	4.2	6.3	8.1	-
소비자물가	3.2	3.0	2.3	2.5	2.3	2.2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CORE)	3.0	2.5	1.9	1.8	1.6	1.8
농산물 및 석유류	3.8	6.1	5.0	6.4	7.6	4.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수입물가는 분기 내 월 증가율 평균치이며, 4~5월 수치는 월 평균치임.

⑦ 실질 소득 : 실속 없는 경기 회복

-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르는 무역 손실 확대로 실질 GDI 증가율은 작년 4/4 분기 0.9%에서 -0.1%의 감소세로 반전됨

-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르는 실질 무역 손실 규모의 對 GDP 비중은 작년 4/4분기에 6.9%에서 올해 1/4분기에 10.0%로 급증함

< 주요 교역조건 및 구매력 관련 지표 추이 >

	2005				2006
	1/4	2/4	3/4	4/4	1/4
수출단가지수	93.0	93.0	92.9	92.7	92.4
수입단가지수	113.7	117.0	119.7	119.2	121.7
순상품교역조건지수	81.8	79.5	77.6	77.8	76.0
실질무역손익의 對 GDP 비중	-6.1%	-5.6%	-6.9%	-6.9%	-10.0%
GDI 증가율 (전기대비)	-1.0%	1.0%	0.5%	0.9%	-0.1%

자료 : 한국은행.

주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의 對 GDP 비중은 원계열 2000년 가격 기준임.

## II. 지방 선거 이후 경제 전망

- 2006년 한국 경제는 완만한 내수 회복, 경상수지 흑자 축소, 금융 시장 불안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05년의 4.0%에서 0.5%p 상승한 4.5% 내외(2005년 10월 전망치 유지)를 기록할 전망
- (완만한 내수 회복) 소비와 설비투자는 기술적 반등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건설투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종합투자계획의 시차 효과 등으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 : 유가 상승에 따르는 실질국민소득 정체, 고용 시장 불안정 등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나, 환율 하락에 따르는 구매력 증가, 주가 상승 등 소비 확대 요인이 존재하여 소폭 상향 조정 (3.5% → 4.0%)
  - 설비투자 : 환율 하락에 따르는 자본재 수입 단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수입 증가,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미흡, 정치 사회 불안 등으로 5.5%의 증가율 유지
  - 건설투자 :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의한 민간부문의 경기 위축과 더불어, 정부의 공공 투자 계획의 효과가 올해중 가시화되기 어려워 보여,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증가율 1.5% 유지)
-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환율 하락에 따르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의 대폭 축소가 예상됨
  - 수출 :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우려되고 있으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완만하여, 10% 내외 (9.7%)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수입 : 유가 급등에 따르는 원자재 수입 확대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 유가가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기존 전망치 3,000억 달러에서 3,040억 달러로 상향조정
  - 두바이유 가격(연평균)은 2005년 배럴당 49달러에서 2006년 1~4월중 59달러
- 경상수지 :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경상수지는 8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하향 조정
- (금융 시장 불안) 전반적으로는 주가, 금리, 원화의 트리플(Triple)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내수 경기의 미약한 회복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불안한 주가 상승 : 2006년에도 부동산價 안정,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 등 수급 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경기 회복세 미약, 엔캐리 자금의 유출 등으로 주가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한편, 기존에 유입되었던 자금의 차익 실현 압력이 증대하고, 경기 회복세가 하강세로 반전될 경우 급격한 주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리 상승 기조 : 정책 금리는 환율 하락으로 물가가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점진적인 인상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 시중 금리는 국내외 정책 금리 인상, 내수 경기 회복세, 국고채 발행 물량 증대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05년 평균 4.3%에서 2006년에 4.6%로 상승할 전망이다
  - 원화 가치 절상 :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나, 대외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위안화의 추가 절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5년 연평균 1,024원보다 절상된 940원 내외가 전망됨 (980원에서 940원으로 전망치 하향 조정)

○ (2006년 4%대 성장 전망)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와 10% 내외의 수출 증가세 유지로 올해 성장률은 2005년의 4.0%보다 0.5%p 상승한 4.5% 내외를 기록할 전망 (2005년 10월 전망 유지)

-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성장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율 상승, 원자재가 안정 등의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정치 사회 안정 등으로 내수 회복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경제 전망 >

		2004	2005(P)	2006(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4.7	4.0	4.5	
	최종소비지출 (%)	0.4	3.4	4.0	
	민간소비 (%)	-0.3	3.2	4.0	
	총고정자본형성 (%)	2.1	2.3	3.1	
	건설투자 (%)	1.1	0.4	1.5	
	설비투자 (%)	3.8	5.1	5.5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282	166	50	
	통 관	무역수지 (억 \$)	294	232	80
		수출 (억 \$)	2,538	2,844	3,120
	기 준	증가율 (%)	(31.0)	(12.0)	(9.7)
		수입 (억 \$)	2,245	2,612	3,040
		증가율 (%)	(25.5)	(16.4)	(16.4)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3.6	2.7	3.2	
	실업률 (%)	3.7	3.7	3.5	
금 용	원/\$ 환율 (평균, 원)	1,145	1,024	940	
	국고채금리 (평균, %)	4.1	4.3	4.6	

### Ⅲ. 시사점 및 향후 정책 과제

#### 1. 시사점

- 최근의 경기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하나, 유가, 환율 등의 대외 여건 개선, 정부의 적극적 경기 안정화 의지가 뒤따르지 못 할 경우 경기 하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소프트 패치 가능성 상존** : 1/4분기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경기 하강 신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프트 패치 (soft patch, 경기 상승 국면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부진 현상) 일 가능성도 존재함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비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 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도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편 고유가에 따르는 물가 상승 압력이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충분히 상쇄되고 있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경기 하강 가능성 점증** : 그러나 수출 경기 하강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제 성장의 속도를 결정지을 ‘내수 회복의 지속력’ 이 약화되고 있어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음
  - 미국과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 고유가 지속에 따르는 수출 기업의 비용 증가, 환율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부문의 기여율은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 한편 수출 부문을 대신하여 경기 회복을 주도해야 할 내수 부문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되지 못 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
- **향후 경기 방향성 결정 요인** :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 지속’ 과 ‘경기 하강으로의 전환’ 의 갈림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의 방향성은 유가, 환율, 수출 대상 지역 경제 상황과 같은 대외 여건의 향방, 정부의 대응 능력 등에 달려 있음



## 2. 향후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과제

- (기본 방향) 향후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그동안의 인기영합적 경제에서 생활 경제로의 복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상에 토대를 둔 인기영합적인 경제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임
  - 시장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고 투자, 고용,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민 실질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생활 경제로의 복원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세부 과제) 정부는 지방 선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가능한 분배 정책 추구, 시장 기반 세계화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 실사구시 실현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하여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 최근 저성장의 직접적 원인이 투자 침체에 따르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주식 시장 활성화와 투자은행 육성과 같은 금융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획기적 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지속 가능한 분배 정책 추구 : 현재의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성장을 통해 분배의 재원을 키우는 先成長 後分配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富를 단순히 이전하는 零和(zero-sum) 방식의

- 분배 정책이 아니라,
-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사회 전체의 성장 활력을 높여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非零和(non zero-sum) 방식의 '지속 가능 분배를 위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
- **시장 기반 세계화 추진** : 한미 FTA의 성공은 시장 원리 확립과 세계화 추진의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임
    -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한국 경제로써는 대외 교역을 통한 경제 이익의 극대화가 경제 발전의 관건임
    - 또한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내 비효율적인 부문들이 자연스럽게 상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시장 원리가 확립되어야 함
  -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유도** : 단기간 내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전체 국민의 실질 자산 가치를 상실케 하고 금융 부문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부동산 가격은 실물 자산 (stock으로서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는 세금 인상 정책과 함께, 금융 자산(flow로서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유도하는 금융 정책이 병행되어야 안정적인 하락이 가능해짐
  - **實事求是의 실현** : 이러한 과제들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리공론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며, 실사구시의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이념과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국가 경제 전체에 이익을 주는 實事求是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적 공감대와 일관된 추진력을 얻게 됨

주 원 연구위원(3669-4030, juwon@hri.co.kr)